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앓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건넨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고요하고 편안함.

(나)

이렇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먼 뿌리와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A]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담 밖을 가뒤편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B]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C]

-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

* 도반: 함께 도를 닦는 벗.

(다)

나는 이홍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잊어도 좋을 것은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잊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잊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잊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잊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잊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잊는다.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잊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잊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잊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잊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잊어도 좋을 것은 잊고
자신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잊지 않는다.”

- 유한준, 「잊음을 논함」 -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④ (나)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다)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